

2025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5.11.25.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7/10	6	1	14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김욱 위원장, 김미화 위원, 이섭교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조원희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3	4	-	1	8	-	8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7	1	-	8

다. 전월(10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단독 보도 이후 후속 취재 관련> 사회복지시설 비리의혹이나 금산군 전 간부의 수입차 무상 사용 등 단독 보도한 내용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지 후속 취재를 해주었으면 함	단독보도 이후 후속 진행 상황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음. 연말기획 뉴스로 후속 조치들을 망라해서 보도할 예정임. <25. 11월 조치>	'25.10월
보도	<5극 3특 전략 관련 보도> 5극 3특 전략 확정 관련 보도에서 대전, 충남 메가시티 연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음. 자세한 내용을 다뤄주었으면 함	5극 3특과 대전 충남 지역 행정 통합 이슈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음.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도 있는 뉴스를 제작하겠음 <25. 11월 조치>	'25.10월
보도	<JMS 관련 보도> JMS, 카이스트 총장 포섭 시도라는 보도를 봤는데, 이광형 총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체타이틀로 사용하는 건 옳지 않아 보이고 심층 취재가 필요해 보임	카이스트 총장 관련 보도는 국감 답변 내용을 토막소식으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간결하고 단순하게 보도한 것임. 기회가 되면 향후 보강 취재를 하겠음 <25. 11월 조치>	'25.10월
보도	<캄보디아 송환자 배당 관련 보도> 캄보디아 구금 국내 송환자 70%를 충남경찰청으로 배당했는데, 송환자 70% 주민등록 주소지가 충남 지역인지 타 지역에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보도해 주었으면 함	충남 경찰청에 많이 배당된 이유가 충남 지역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충남청의 수사역량 때문이라고 보도에 주안점을 두긴 했는데 강조가 되지 않은 것 같음. 관련 보도시 재보도 하겠음.<25. 11월 조치>	'25.10월
보도	<한화이글스 관련 보도> 한화이글스 관련 흥미로운 현상이 대전 지역 곳곳에서 응원전이 열리고 있는데 대전시민들의 뜨거운 야구사랑 현장을 담아보면 어떨지?	한화이글스 붐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관련 뉴스를 할 예정이고 11월 중순에 특집 다큐멘터리도 방송될 예정임. 시민들의 팬덤이나 지역문화로 선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겠음 <25. 11월 조치>	'25.10월
교양	<봉사 현장 소식 관련> 연말에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민간 복지단체의 활동을 자주 조명해 주시기를 바람	연말이 될수록 봉사자들에 대한 조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새겨들고 봉사 현장에 대한 방송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음. <25. 11월 조치>	'25.10월
교양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오늘M' 초대석에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시의 적절하게 잘 다루었는데, 방송에서 지속적인 예방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프로그램 방송 특성상 같은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다룬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아이템은 다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5. 11월 조치>	'25.10월
기타	<유튜브 채널 운영 관련>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를 강화할 때 단순한 스포츠 홍보가 아닌 지역민의 정체성과 감정이 응집된 팬덤 문화를 포용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으면 함	현재 프로야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구독자나 접속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앞으로 사람들의 참여 형태를 고민하면서 꾸준히 진행하겠음 <25. 11월 조치>	'25.10월
기타	<시시각각 미리보기 관련> 홈페이지에 <시시각각> 코너를 보면 다시보기와 미리보기가 있었는데 23년 1월 1일부터는 미리보기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고 있음.	시시각각은 23년부터 편성국으로 이관되면서 미리보기가 없어졌고, 그 이후 다시 보도국으로 오면서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으나, 현재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올리고 있음. <25. 10월 조치>	'25.10월
기타	<홈페이지 개편 관련>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아졌지만 세세하게 놓친 부분들이 있음. 현행 프로그램 현황과 편성표, 뉴스 다시보기, 노이즈 등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임	오늘이 개편된 홈페이지 오픈 첫날이라서 완전히 안정화 되지는 않고 80% 정도 개편된 상황으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음 <25. 11월 조치>	'25.10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5년 11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김 욱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가족센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5.1~26.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5.1~26.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총보팀장	민주노동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5.1~26.4.30
위원	문선혜	전앤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라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자살 예방 관련 보도> 한국이 OECD 국가중에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다큐나 보도를 통해 관련 주제를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회의록 첨부	○		
보도	<탄소 중립 관련 보도> '시시각각' 과 '보도특집' 에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시대에 대해 잘 다루주었는데 향후 탄소감소와 에너지에 대한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루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보도 자막 오류> 에너지 관련 보도에서 호주 과학 아카데미에 방문해 안내해 주는 분의 인터뷰 장면이 있었는데 이름이 소속기관명으로 자막이 잘못 기재됐음. 수정이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교양	<스포츠 관련 다큐> 스포츠가 지역경제나 지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해서 담았으면 좋겠고, 대전에 특화된 스포츠를 중심으로 시리즈물을 기획해도 좋을 것 같음	회의록 첨부	○		
교양	<문화예술계 관련 방송> 지난주에 개최한 K아트페어는 지역의 큰 이벤트 행사인데 대전MBC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은 것 같음. 문화예술계 소식도 많이 다루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다큐멘터리 주제 선정 관련> 보도 자료를 보니까 '더 퍼퍼스' 가 곧 방영될 예정인데 재미있을 것 같음. 다큐멘터리 주제는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시티 인 더 가든 내용 관련> 소재 선정도 좋았고 내용이나 진행도 매끄러웠지만 대부분의 장면이 세종이나 범지기 10단지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대전지역도 소개해 주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음	회의록 첨부		○	
기타	<홈페이지 화면 관련>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대전MBC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를 할 때 메뉴 툴바가 가려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개편 후에 빠진 것들이 없나 세세하게 다시 챙겨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2025년 11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7명)

김욱 위원장,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조원희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오늘 회의는 위원님 10분 중에 7분이 오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총 11건입니다. 편성 불만 2건, 자막 불만 1건, 자료화면 불만 1건, 홈페이지 이용 불만 1건, 기타 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바쁘실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견과 좋은 의견 많이 듣고 방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다음은 김욱 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욱 위원장

오늘은 많이들 바쁘셔서 출석을 많이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위원님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원희 위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조원희 위원

지난달에 대전MBC 유튜브 채널 내 지역 스포츠 콘텐츠 확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었는데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시기가 조금 지난 후 11월 16일에 한화이글스 특집 다큐멘터리가 유튜

브와 TV로 동시에 송출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스포츠 다큐를 넘어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오랫동안 버텨온 시간이나 감정을 담아낸 의미 있는 콘텐츠였다고 생각합니다. 26년 동안 긴 시간이었죠. 가을 야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팬들의 시간을 따라가면서 승리의 순간보다는 기다림이나 축적,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스포츠 콘텐츠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시즌 초반에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모습까지 솔직하게 보여주면서 실패가 아닌 전환점이었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인상적이었고, 내용이 단순히 승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정과 방향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교육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생명 볼파크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형성된 팀의 변화가 단순히 공간의 변화라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과 구조가 사람과 결과를 바꾼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넘어서 조직과 지역, 그리고 삶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사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글스 선전이 대전 시민들의 자부심, 지역 상권, 도시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모습이 잘 반영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따로 모여서 응원하는 장면이 지역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이번 다큐멘터리가 단순하게 구단 홍보라든가 스포츠 기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역 방송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역할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MBC가 앞으로도 이런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지역의 시간과 사랑을 담은 콘텐츠를 계속 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욱 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은숙 위원

대전MBC 홈페이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컴퓨터 화면에서 보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위에 툴바가 영상 화면을 가리는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휴대폰이나 다른 기기에서는 괜찮은데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보기에는 아직 개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글자가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좋았던 건 프로그램들을 더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고, 특히 연중 캠페인들을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개편이 되면서 연중 캠페인도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이 <시시각각> 토론 프로그램인데요. 11월에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다뤄주셨더라고요. 보도 특집으로도 충남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시시각각>에서도 11월 23일에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뤄주셨습니

다. 전반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 시대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시민들도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감은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주니까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에 탄소 감소 실천과 관련된 논의도 구체적으로 토론에서 제시해 주면 상당한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 특집이나 <시시각각> 토론에서 다뤘으니까 이 에너지에 대한 의제들을 대전MBC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 방송된 <시시각각>에서 ‘극한 갈등, 토론으로 풀어내려면?’ 주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진행자가 5명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토론이나 선거 방송 진행하셨던 분들이 패널로 출연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진행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봤는데 ‘토론을 배우지 못해서 토론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다’, ‘정치권의 토론이었다.’ 하는 부분들은 공감이 가기는 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토론 방식 교육에 익숙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들의 생각들도 더 담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패널들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치우치지 않게 다양한 세대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내컷>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살이를 깊이 있게 보여주면서 흥미 위주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에는 보자기 아티스트 이효재님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예전에 엄마가 어디 갈 때 보자기로 싸주면 그게 부끄럽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가방에 넣어주지 왜 보자기에 싸 주냐고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그런 추억들도 돌아보게 되고 보자기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의 삶들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박은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선혜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문선혜 위원

저도 야구팬으로서 <체인지업 : 26년의 기다림>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드릴수가 없는데요. SNS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한화 팬들은 전국적으로 ‘대전MBC가 좋은 걸 해냈다’, ‘유튜브 링크는 어디 있냐’ 등 SNS에서 며칠 동안 뒤덮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었고요. 저도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대전MBC가 아니어도 제작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아마 1년 동안의 스토리를 간결하게 담고자 하다 보니 굵직한 내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과학관 응원 같은 장면

들이 짧게 나오긴 했지만, 실제 지역 언론이 다룰 수 있는 건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대전시민들, 충남도민들이 한화 이글스 등 스포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지역 경제나 지역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밀착해서 담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큐 시리즈로 내년에는 여자 배구를 한다든지, 또 오상욱이 대전의 아들이니까 펜싱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전에 특성화된 스포츠를 중심으로 시리즈 기획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전MBC에서 다루지 않아서 아쉬웠던 게 있는데 지난주 목,금,토,일에 DCC에서 ‘대전 K아트 페어’를 했는데요. 우리 지역이 자랑할 만한 큰 이벤트 행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대전MBC에서 따로 다루거나 홍보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스포츠 관련 뉴스는 꾸준히 잘 다루주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계 소식은 많이 다루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도 지난달 위원회 때 제가 의견을 드렸었고, 개편된 지 얼마 안 돼서 반영이 아직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메뉴 관련해서는 아직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요. 메뉴 매칭하는 작업들이 어려운 건 아는데 외주를 통해서 하시다 보니까 꼼꼼하게 안 챙겨지는 것 같습니다. 개편 후에 세세하게 빠진 것들을 다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섬교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섬교 위원님

11월 7일에 방송했던 <시티 인 더 가든: 정원, 도시를 품다> 프로그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탄소 중립, 기후 변화,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엮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도시가 어떻게 정원을 만들 것인지를 세종시와 ‘솔라시도’라고 하는 예시들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원은 근접성이나 친밀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세종시에 있는 세계 최대의 정원을 보여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런 정원이 있다는 것도 아마 방송으로 처음 보신 분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정원이 구경 가는 식물원 같은 느낌이라서 제목과 상반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소재 선정은 좋았고, 내용이나 진행 자체도 매끄러웠고 시민들이 살고 있는 정원이나 자연 환경을 위주로 보여주셔서 좋았습니다. 대부분 세종이나 범지기 10단지에 국한돼 있고 자연 환경이 50% 이상 되는 곳을 취재하신 것 같은데 대전지역도 그런 곳을 찾아서 보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방문한 외고 학생

들의 인터뷰가 계속 나왔는데요. 정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연령층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견학하는 장면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좋은 느낌이었고 특집 프로그램으로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시대 의식이 있는 방송으로 대전MBC 프로그램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애쓰셨습니다.

김옥 위원장

이점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미화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미화 위원

제가 일하는 곳이 생활 시설이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김장도 후원해 주시고, 쌀도 후원해 주시는데 어제 김장김치 10kg짜리 20박스를 후원 받으면서 특집프로그램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을 짧게 보여주지 말고 상세히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잘 아우러져서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여러 지자체가 참여해서 김장 김치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장님들도 오셔서 김장을 담그면서 인터뷰하시는 표정이 밝고 생동감이 넘쳤고요. 특히 “김장 많이 해보셨나” 인터뷰에 진솔하게 대답하는 걸 보고 ‘즐겁게 참여한다.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보도 특집 <충남, 탄소 중립의 길에 서다>를 봤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이 너무 필요하다면서 일본, 영국, 스코틀랜드, 충남 당진, 대덕, 대청호 이런 곳의 상황은 서로 다른 조건이지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 과제를 어떻게 지역 안에서 실천해 나가는지를 상세히 보여주셔서 좋았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애쓰는데 이해관계와 갈등이 있다 보니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주민 갈등이 있는데 거버넌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해 나가자는 부분들까지 소개해 주셔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사례들을 보면 친환경 정책 활용에 대해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특히 당진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단지를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알려주셔서 특히 충남 지역에서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뉴스에 나오는 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좋은 모델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셨던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보완되면 좋겠다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못하고 있다’, ‘꼴찌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숫자와 데이터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면 관심을 안

가졌던 분들도 앞으로 더 속도를 내야 되는구나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전MBC 뉴스에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강점이기 때문에 충남 쪽에 집중해 주셔서 지역 상황은 알게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낫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1호점>에서 두 번째로 팝업을 오픈 준비하는 것을 봤는데 MC가 KCM으로 바뀌었더라고요. 1화 때 해녀마을 태안을 찾아가고, 2화 때는 서천을 찾아가잖아요. 서천이 큰 화제가 있어서 상인들이 힘들어 하는데 시장 풍경 속에서 무리 없이 스며들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잘하더라고요. 서천을 선정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방송해 주시는 것이 위로도 되고, 응원도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서 이어서 잘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 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일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정성일 위원

이번 달에도 보도와 프로그램도 잘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 맞아서 나왔던 보도를 봤는데 친구였던 두 희생자들의 엄마들이 친구가 되어서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 잘 비춰진 것 같고, 슬픔 속에서도 따뜻함을 표현한 모습이 보여서 시청자들에게도 좋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원하는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도 그 안에서 담아냈던 모습이 시청자로서 그 당시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한 보도도 많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충남, 탄소 중립의 길에 서다>라고 보도로도 나오고 다큐로도 나왔는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꼴찌이고 한 순위 위인 멕시코의 절반 수준일 정도로 심각성을 알기 쉽게 보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 달에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준비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 달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일본의 수소 거부 이야기와 온실가스 10배 우려되는 대전 열병합 발전을 다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꼬집어 주고, 또 다큐로 길게 잡아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시시각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적 토론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충남이 석탄 화력 발전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서 어찌 보면 피해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신재생에서 외면 받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속 주목해서 이런 부분을 보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밥 프랜차이즈 관련 보도도 단독으로 여러 건 나온 걸 봤는데 저도 즐겨 이용하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지역 프랜차이즈가 전국화 된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이걸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꼬집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람회장까지 찾아가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취재하는 모습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보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 상황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데이터 저널리즘 특별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폭염 불평등 문제를 다룬 보도를 당시 시청자위원들도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노동에 있어서 폭염 불평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보도는 철이 지나버려서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년 여름이 다가올 때는 이 부분도 다뤄주시면 많은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AI 시대...‘사람중심’ 디지털 전환” 그리고 “지속 가능 과학도시..‘다 함께’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기획 보도를 봤는데요. 과학도시 대전에 걸맞은 보도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오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편에서 호주 과학 아카데미에 방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유성구구청장님도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름이 ‘배서니’로 나오고 소속과 직책이 ‘홀랜드 호주 과학 아카데미 기록 담당’ 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인가? 왜 호주 앞에 홀랜드가 붙지?’하고 확인해 보니까 안내해 주신 분이 성이 홀랜드 이더라고요. 성이 기관명에 붙은 오류 상태로 보도가 된 것 같고, ‘배서니’도 맞춤표 표기에 의하면 ‘ㅁ’가 아닌 ‘ㅂ’가 돼야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수정해 주시는 게 안내해 주신 분에게도 실례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정성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더 페퍼스> 다큐멘터리가 제작은 끝났고 곧 방영될 예정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더 페퍼스>를 누가 기획했는지 의미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의 둘레길> 내포 문화 숲길도 보니까 대전MBC의 다큐멘터리 제작 능력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대전MBC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올해 MBC 대학가요제가 부활됐는데 이 번에 배재대학교 공연예술학과 “Y507”팀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 상을 받은 건 대전의 자랑이기도 하니까 대전MBC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신지요?

이섬교 위원
다큐멘터리 주제를 선정할 때 방송국에서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중독 센터나 자살 예방 센터들을 접하게 되면서 유족 모임이나 기관 관계자들을 많이 봤는데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올해도 1위를 찍었더라고요. 조심스럽지만 자살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에서 39세 사이의 여성 자살이 높은데 접근이 어렵겠지만 이 문제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MBC가 다큐멘터리나 보도를 통해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된다면 조심스럽지만 이런

부분도 다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홈페이지 개편 후 살펴보면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홈페이지 개지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놓은 상황인데 어느 부분인지 다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박은숙 위원
홈페이지를 노트북이나 PC에서 봤을 때 위에 메뉴 바가 다시 보기를 재생하면 화면을 덮는데요. 얼굴에 이마 부분이 좀 덮이더라고요. 핸드폰으로는 괜찮은데 PC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이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 위기에 놓인 분들 관련해서는 자살보도 준칙이 있어서 뉴스로 다루기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디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관련 기관에서 이런 표현은 삼가해 달라고 제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지만 엄청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여서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정도로 캠페인을 방송하는 게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도에서 다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각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패널을 선정할 때 균형적인 시각을 갖춘 분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문화, 예술쪽 소식도 최대한 많이 다루려고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기는 거 보니까 후 순위로 밀리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고정코너로 만들자는 의지들은 저희 내부에도 있거든요. 적절한 문화관련 분들을 찾아서 집중 취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아트페어’는 대전에서 유명한 전시입니다. 모 언론사에서 대전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인데요. 전시 내용도 좋고 전시회에서 그림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기가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관련 다큐 <제인지업 : 26년의 기다림>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올 봄 시즌 개막 전에도 이승섭 차장과 여상훈 기자가 1편을 직접 제작했었고요. 이번 2편도 그 취재기자, 카메라 기자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자료 그림을 받더라도 본인들이 날밤을 세워 가면서 공을 들여 만들었는데요. 지난달에 야구에 대한 지역의 정체성, 지역의 문화라는 측면

을 조금 더 보강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제작이 많이 돼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초에 야구 관련 다크로 가제는 '스포츠 특별시 대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역과 스포츠가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의 지역의 정체성이 되는지 분석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2040년까지 국내 석탄 화력은 모두 폐쇄될 예정입니다. 충남에 가장 많이 몰려 있어서 지역에서 계속 가져가야 될 화두이자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관련 <시시각각>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에너지 쏠림 현상이 심해서 수도권에 있는 '삼성전자'에 전기를 대기 위해서 호남에서 충남을 거쳐서 송전 선로를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충남이나 지역으로 오게 되면 전기를 공급하는 데서 바로 송전 선로가 길지 않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지역 분산화를 화두로 삼고 집중해서 관련 뉴스나 제작물들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획 뉴스의 자막 오류 얘기는 들어서 수정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서 대전 열병합 발전인 CNCT 에너지가 대전의 에너지를 독점하고 있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 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은 산자부에서 결정하더라도 에너지 빈곤층까지 갈 수 있는 공급의 지연 문제는 자치단체와 에너지 독점 업체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지역 내 에너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구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론의 감시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프랜차이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프랜차이즈와 가맹점들의 상생의 길은 무엇인지 해법까지 제시하는 보도로 완결을 짓는데 왜 자꾸 거기만 지적 하나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속성이 가맹점주들의 눈물과 땀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아무리 상생과 동반 성장이 강조돼도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곳들이 많아서 이번 보도를 통해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정리 보도해서 후속 대책이나 반응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박은숙 위원님께서 <인생내컷>이 다양한 사람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유념하겠습니다.

문선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계 소식도 <오늘M>에서 많이 다루고는 있는데 아이টে들이 자사와의 관계성 등 복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해서 모두 다루기는 힘들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성교 위원님께서 <시티 인 더 가든: 정원, 도시를 품다>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의 제작 협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적으로 세종시를 벗어날 수 없었던 한계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들은 가라> 6회까지 태안에서 끝났고, 지금은 7, 8회하는데 서천은 12회까지 갑니다. 지금 남아있는 9회부터 상인들을 잘 위로하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차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편성국내에서 인력이 한정돼 있지만 "내년에 만들고 싶은 다크멘터리 기획안을 제출하세요."라고 해서 받은 후 저하고 제작부장이 협의를 통해 괜찮겠다 싶은 기획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따로 제작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중소 지역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제작'에 응모를 하거든요. 거기서 선정되면 제작비가 100% 나오는 건 아니고 80%정도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게 됩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더 페퍼스>와 <한국의 둘레길-내포문화숲길>도 제작 지원작입니다. 제작비가 부족한 경우 <오지랴 보건실>은 교육청에서, <애들은 가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았고, <지역생존 프로젝트>는 한밭대학교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도움을 받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더 페퍼스>는 28년 경력이 넘는 고참 PD가 지난번에 미국, 멕시코, 볼리비아, 헝가리, 덴마크 등 한 달간 강행군을 하면서 찍어왔고, 고생을 많이 해서 만든 작품으로 30분씩 4부작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30분씩 만든다는 건 해외 유통을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고품질 다크멘터리라서 시간이 되시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성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 관련해서 OECD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고 그 중에서도 충남이 1위인데요. 최근에 통계가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충남 쪽에서도 청양 노인들의 자살이 많은 편입니다. 작년 이맘때 연중 공익 캠페인으로 자살 예방 캠페인인 '당신은 소중한이다'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첫 회가 유성의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공동체에서 무료 급식을 같이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공익 캠페인이 계속 이어지려면 스폰서를 구해야 하고, 또 소재 발굴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살 예방을 위한 청소년 문제까지 다양하게 더 밀착해서 공익 캠페인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공익 캠페인은 오히려 일반 콘텐츠보다 노출이 자주 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속성 있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익 캠페인 시리즈로 많은 부분들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최근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민해서 MBC의 공익적인 기능을 토대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이 제작돼서 내일부터 송출될 예정입니다. 전국 차원으로 모든 방송사가 같이 방송하는 건데 전략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잘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 위원장님 인사말과 사장님 인사말 듣고 마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저는 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늘 고마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대전MBC에서도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에 또 뵙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오늘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한 해로 방송이 종결되는 짧은 다큐멘터리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스포츠 다큐, <시티 인 더 가든>, <탄소 중립>, 그리고 <사랑의 김장 축제>까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인력과 재정 상황에서도 지역 방송의 역할을 다하려고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본사에서 1년에 한 번 16개 지역사 작품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하는데 다음 주 서울에서 창사기념일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보셨던 <오지랖 보건실>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서도 MBC 계열사 뿐만 아니라 전체민방을 포함한 지역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시상할 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방송한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가 거기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폭염 불평등 실태 보고서’는 ‘데이터저널리즘 어워드’에서 기후위기 특별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잊힌 사람들’ 한센인 정착 마을의 오늘”이라는 보도가 대한민국 한센인 대상 언론 부문에서 수상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우리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상으로 11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